

# 도민 항공운임 지원 물건너가나

### 여야 21대 국회 만료 앞뒤 마지막 임시회 협상 난항 국회 계류 중인 제주 관련 법안 자동폐기 수순 전망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일정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자동 폐기 운명을 맞게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처리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 면 쟁점 법안은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안전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 만료되는 만큼 현 상황대로라면 제주 현안 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이 발의한 제주도민 등 섬 주민들에게 항공운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은 항공기의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섬지역의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된 삼성사 재단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삼성사 재단은 2023년도에만 약 3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이 지난해 11월 제주자치도의 역사적·지역적 특수성 및 지방분권 필요성을 고려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자치도 내에서 논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까지 논의가 이어졌지만 신중 검토 의견이 제시되면서 상임위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의 경우 폐회 중인 상황에서 개별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는 등 은도차도 보인다.

앞서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지난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18일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서울=부미현기자



4월 햇볕 맞는 오징어 화창한 날씨를 보인 24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가정집 마당에서 오징어 말리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강희만기자

## 다음달 광역-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 윤곽

### 도행정체제개편추진단, 전문가 토론회 등 거쳐 3만여건 최종안 마련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에 대한 최종안이 도민·행정시·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나올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 준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요 검토 대상은 도·행정시 전체 사무 2만4520건, 자치구 제한 사무 가운데 상수도·폐기물처리시설·대중교통·장사시설·동물보호시설·체육시설 등의 사무 및 국가권한이양 사무 5321건, 민간위탁 사무 318건 등 3만 여건에 이른다.

도는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상수도 사무는 기초사무이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8년간 광역으로 추진한 만큼 도민 혼란과 불편 등의 이유로 광역 사무로 둘 예정이다.

이에 도는 앞으로 행정시와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무배분 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다. 사무배분안과 연계해 제주만의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교부금을 활용한 '제주형 형평화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분권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연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도의 의견을 경청중으로 아직 정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강민철 도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장은 "올해 상반기 내에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주민투표 건의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주민투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며 협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백국탁기자 haru@ihalla.com

## 숙박음식업·도소매업 등 일자리 지원

### 도 '제주형 관광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개선을 위해 '제주형 관광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빈일자리는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달 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로, 정부에서 지정된 제주지역 빈일자리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이 해당한다.

선정사업은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관광 관련 빈일자리업종에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도약일자리장려금 ▷일자리채움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외국인 응대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4개 사업으로 운영된다. 총지원금은 11억8100만원이며 예

산 소진 시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제주관광 도약일자리장려금+'은 빈일자리업종 기업이 올해 2월 26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최대 1년간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제주관광 일자리채움지원금+' 사업은 빈일자리업종 정규직으로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분기별 3회에 걸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은 단시간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간접 노무비 월 60만원, 근로자 교통비 10만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한다. 김도영기자

## 저소득 어르신 안경 구입비 서귀포시, 올해 첫 지원 실시

서귀포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유지를 위해 올해 처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2752만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올해 390여명에게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1인 7만원 이내의 실구입비가 제공되는 데 3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 통장 사본, 구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또는 안경 구입 영수증이 필요하다. 전선희기자

## 제주시 빗나무 빗자루병 긴급 방제

제주시 지역에 심어진 일부 빗나무에서 빗자루병이 확산함에 따라 긴급 방제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산림병해충방제단 등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왕빗나무 가로수, 도시공원 및 골채오름 등

왕빗나무 식재지에서 빗자루병에 걸린 나무를 방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빗자루병은 곰팡이균의 일종인 타프리카(Taphrina)균에 의해 수령이 오래되거나 수세가 약해진 나

무에서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병을 말한다. 이 병에 감염되면 기형으로 돌아난 잔가지들이 빗자루처럼 쪼그라들다가 10~20년이 지나면 말라죽는다.

예찰 결과 1100로, 명림로, 선교로 등 일부 빗나무가 빗자루병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100그루 이상이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기자

## 2024 제주인명록 발간

한라일보가 제작한 「2024 제주인명록」이 발간됐습니다. 「2019 제주인명록」 발간 이후 5년만입니다. 도내·외 인사 3000여명이 수록된 이번 인명록에는 2023년 11월말 기준 도내 주요기관·단체 인사는 물론 국내·외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제주인의 기개를 드높인 인사들의 현직 및 주요 경력 등이 정리됐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규 격 | 4X6배판 정 가 | 15만원  
입금계좌 | 농협 981-17-006824

**한라일보** | 구독문의 : 064)750-2531